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⑪ 병 · 죽음 그리고 출가



▶한줄요약
근대기에 가까워질수록 병과 죽음이 더 중요한 출가 계기가 되었다. 병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처절한 참회를 하고 깊은 성찰을 했다.

참혹한 중생에서 찬란한 선승으로…

15. 약사여래와 지장보살

약사여래와 지장보살은 중생구제를 위해 사바세계에 머물고 계시는 부처님의 원력을 가장 앞선 자리에서 구현하고 있다. 약사여래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단명(短命)을 늘려주거나 비명횡사를 막아준다. 정신의 병도 치유해준다니 약사여래는 중생의 간단치 않은 삶에서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장보살은 죽음 전후의 마음을 어루만져줌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없애준다. 현세에서 죽음 탓에 고통받는 중생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으로 간 중생마저도 제도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병과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출가한 선승이 많은 것은 이런 믿음의 그릇에 그들의 사연이 담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병과 타인의 죽음이 출가 동기로 이어진 경우도 많다. 사진은 월정사 단기 출가 수계식 모습.

16. 병

지증(智證, 824~882)은 아버지의 49재를 지내준 스님이 부처님을 따라가야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하자 출가를 결심했지만 어머니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 가출하여 공부를 하던 중에 어머니 병환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갔다. 어머니의 병은 곧 나았지만 대신 자기가 학질에 걸렸다. 병이 나을 기미가 없어 점을 보니 '이름을 부처님께 올리면 나을 것이다' 는 점괘가 나왔다. 그제야 어머니도 출가를 허락했고 지증의 병도 말끔히 나아 출가하게 되었다. 지눌(知訥, 1158~1210)은 태어날 때부터 병이 많았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아들을 출가시키겠다고 아버지가 부처님께 약속을 하자 병은 완쾌되었고 마침내 출가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이 사례들에서는 병든 출가자를 두고 부처님과 출가자 그리고 부모 사이의 조건 내걸기가 나타난다. 신적 존재를 향한 고대적 축원을 닮았다.

고우(古愚, 1937~2021)는 폐병을 앓다가 요양차 수도암으로 들어갔다. 점차 좋아지는 것 같아 계속 머물게 되었으니 출가를 한 셈이 되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폐병은 다 나았다. '중도를 알고' '내가 없다는 걸 터득' 한 것이 특효약이 되었다고 했다. 병으로 고생하던 구산(九山, 1909~1983)이 한 거사를 만났다. 그는 "본래 청정한 자성 자리인데 어디에 병이 붙겠는가?"라고 했다. 이 말에 발심한 구산은 백일 천수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나자 병이 나았고 정식으로 출가했다. 대효(大曉, 1945~)는 5살에 앓은 홍역으로 몸이 망가져 세속 생활을 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 대효는 3일간의 치열한 사유 끝에 출가하여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확신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몸이 제 노릇을 다할 수 있는 절로 들어간 것이다.

17. 단명

자식의 수명이 짧다는 말을 들은 부모라면 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 어떤 일이라도 하려 할 것이다. 석봉(1890~1971)은 어려서부터 병약했다. 부모는 그가 단명할 것을 알았다. 부모는 일곱 살 석봉을 곡성 관음사로 데려가 기도를 올리게 했다. 21일째 되던 날 비몽사몽간 독사 한 마리를 토해냈다. 독사가 땅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깨어난 석봉은 그간 자신을 괴롭히던 병고에서 벗어났고 바로 관음사에서 출가했다.

법전(法傳, 1926~2014)은 말끝이 분명하지 않았다. 말끝이 흐린 아이 치고 오래 사는 경우가 없다고 어른들이 걱정했다. 주역가는 법전을 절에 보내지 않으면 스무 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부모는 청류암의 묵담(默潭)에게 아들을 맡겼다. 과연 법전은 형제 중 유일하게 장수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읜 선경(禪敬, 1904~1996)은 보살펴 줄 이 없이 병고에 시달렸다. 끊임없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결국 자살을 기도했다. 그 순간 "그대, 부처님 인연이 지중한데 어찌하여 스스로 명을 끊으려 하는가?"라는 허공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접고 출가했다. 출가의 결심만으로 육신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 것이다.

18. 그리움

혜근(惠勤, 1320~1376)은 절친한 친구가 죽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어른들에게 물었지만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슬픔을 어쩌지 못한 혜근은 묘적암 요연(了然) 문하로 출가했다. 종산(宗山, 1924~2020)은 대학시절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그리움으로 출가했다. 고산(杲山, 1933~2021)은 12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범어사 동산(東山, 1890~1965)에게 데리고 갔다. 고산은

병과 죽음의 문제로 출가 계기
단명 타고난 운명 출가로 변화
지인 죽음 목도 후 출가하기로
병과 죽음 앞에서 참회와 성찰

"스님 제자가 되면 우리 엄마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동산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서옹(西翁, 1912~2003)은 같은 해에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비관과 절망에 빠진 채로 부처님 관련 책을 읽다가 출가했다.

남편과 사별한 만성(萬性, 1897~1975)은 상원사 한암의 법문을 듣고 크게 위안을 얻었다. "절에서는 혼을 불러준다고도 하는데, 죽은 남편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한암은 "스님이 되면 만날 수 있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하거든 대법왕께 귀의하라"고 했다. 그래서 37세에 출가했다.

19. 고아의 마지막 자리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고 출가한 선승도 적지 않다. 충담(忠湛, 869~940)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장순(長純)이 데려가 상좌로 삼았다. 승형(承逈, 1187~1221)은 3살 때 고아가 되었다. 숙부에 의해 양육되다 7살 때 운문사 연실(淵實) 문하로 출가했다. 경헌(敬軒, 1542~1632)도 10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15살 때 옥주(玉珠)를 은사로 하여 출가했다. 만암(曼庵, 1876~1957)은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11살 때 어머니를 잃고 출가했다. 성문(性文, 1895~1974)은 11살 되던 해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해인사 삼선암으로 출가했다. 13살 때였다. 수산(壽山, 1922~2012)은 어릴 때 큰형님과 사별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이어 죽었다. 수산이 14살 때였다. 3년 상을 마치자마자 어머니도 죽었다. 또 3년 상을 치렀다. 자식이 죽은 탓에 이어서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수산은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자 했다. 백양사로 출가한 것이 19살 때였다.

우화(雨華, 1903~1976)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울고 있는 우화를 미워하고 무자비하게 때렸다. 14살 우화가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닿은 곳이 함양 영각사였다. 우화는 굶어죽지 않기 위해 그 절로 출가했다. 전강(田岡, 1898~1975)은 7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계모가 전실 소생 아이들을 방치했다. 전강의 젖먹이 동생은 걸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14살 때 아버지가 죽으니 계모는 자기 소생 젖먹이 아이를 전강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밥을 빌어 이복동생을 먹여 살리려 했지만 결국 둘 다 죽을 것 같았다. 그때 어떤 스님이 나타났다. 절로 가서 도를 닦으라고 권했다. 그 말에 해인사로 출가했다.

20. 죽음 성찰

죽음의 경험은 생사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기도 했다. 휴정(休靜, 1520~1604)은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이듬해 아버지마저 잃었다. 당시 원이 한양으로 데려가서 보살펴주었지만 언제나 울적하여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죽음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하다가 홀연 선가의 돈오법을 깨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출가했다. 제선(濟禪, 1912~?)은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소학교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자기 앞에서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제선의 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가출하여 유랑하던 차 평안도 묘향산에 이르러 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 왜 제 아이가 그렇게 죽어버렸을까요? 그 까닭을 모르고선 답답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7일만 잠 안 자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궁금한 것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야." 이 말에서 제선의 출가수행이 시작되었다.

철우(鐵牛, 1895~1979)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3살에 어머니마저 잃었다. 어린 철우는 "도를 통하려면 참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를 잃은 허전함 속에서 도를 통해 생사와 이별의 고통을 파헤쳐보고자 했다. 15살에 참선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일엽(一葉, 1896~1971)은 11살 되던 해 어린 남동생이 죽자 이어 어머니가 죽었다. 19살 때는 아버지까지 죽었다. 만공(滿空, 1871~1946)의 법문을 듣고는 평생 자신을 옭아매 왔던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될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출가했다.

경봉(鏡峰, 1892~1982)은 15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적 개안의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을 안고 통도사 성해(聖海) 문하로 출가했다.

초의(草衣, 1786~1866)는 5살 때 강변에서 놀다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렸다. 물을 삼켜대며 가라앉았다가 솟아올랐다가 했다. 죽음의 새까만 어둠이 그를 삼키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를 구출해주었다. 죽음의 어둠 밖으로 나온 순간, 삶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 환희인지를 알았다. 그 까만 어둠과 밝은 빛의 교차는 그 뒤 내내 의식을 떠나지 않는 기묘한 무늬가 되었다. 그 무늬가 결국 15살의 초의로 하여금 산문으로 들어서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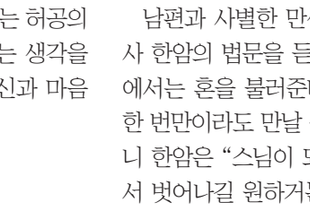
21. 평등

근대기에 가까워질수록 병과 죽음이 더 중요한 출가 계기가 되었다. 병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처절한 참회를 하고 깊은 성찰을 했다. 그리움에 사무쳐 망연자실하기도 했다. 불교는 그런 출가동기를 두고 등급을 매기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깨달음이 거기에 머물지도 않았다. 불교는 아프고 외롭고 절망하고 버려진 존재의 마지막을 그대로 담아주었다. 초라한 땅으로 내쳐질 때는 참혹한 중생이었지만 어느덧 일어날 때는 찬란한 선승이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고 떳떳하게 말할 곳이 거기다.

〈연세대 객원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염불전문 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